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8 ~ 12/2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닫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독	샘앤파커스
3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8	부다 수업	법상	민족사
4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9	참선 잘하기	김형호	김영사
5	천당과 지옥은 번지가 없다	김진태	동승동	10	괴로운 어디에서 오는가	평영외인	운주사



## 선지식이 남긴 玉稿 켜켜이 쌓아놓으니...



효당 최범술 문집 1,2,3  
편자 채원화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 민족사  
각권 2만 5천원



구급 12월 20일 열린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및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개원 30주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회 효당 차문화상 수상자로 안선재 서강대 교수를 선정·시상했다.

“무념무상한 이 자리에 있어 내 보좌의 미달을 뒤우쳐 마지않는 바이다. 제불이 일찍이 말하시되 법을 위해 몸을 돌아보지 마라 하였으니, 곧 잠을 위해 거짖을 짓지 말라는 말이다. (효당 문집 1권·광복 후 기고문 ‘新年初心’)”

1948년 1월에 발간된 <불교>지에 수록된 효당 최범술 스님의 신년 기고문이다.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향한 보좌가 합당 미달이었음을 자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법을 위해서는 몸을 돌아보지 말라” 했음을 강조한다. 수행자로서의 신년 초심을 다지는 각오가 남다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42년 김법린 등과 해인사, 다솔사 등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돼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1947년 해인사 주지로 살았고, 1948년 제현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었다. 만 큼 그의 생전 집필했던 원고들의 총위도 다양하다. 불교학자로서 학술논문부터 짧은 기고문과 불교 교학 주제 저서와 차 관련 저서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그의 저서를 한데 망라한 문집이 발간됐다.

국 차도의 중흥조 효당 일대기'와 △효당 추모학술논문집 △추모집: 老佛微笑 △효당의 차와 삶 등이 수록돼 있다. 이중 의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는 현대인들에게도 잘 생각할 수 있는 글이다. 또한 각계 인사들이 쓴 추모집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문집은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04년부터 10년 간 준비해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유족인 본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비롯해 그 외의 자료는 온 가족이 자료 수집에 나섰다. 채 회주는 사람을 직접 만나 구술 자료를 비롯한 자필 기록물을 받았으며, 아들 인 화정은 인터넷과 도서관 목록을 뒤져가며 자료를 모았다.

### 근현대 선지식 효당 스님 논문·단행본 저서 등 망라 茶人으로서 면모 알게 돼 명사들의 추모 문집 '눈길'

효당 최범술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단체인 효당사상연구회의 채원화 회주가 편저한 <효당 최범술 문집>은 총 3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에는 학술 논문과 광복 전후 짧은 기고문과 연재물 ‘청춘은 아름다워라’가 수록돼 있다. 논문으로는 해인사사간부판목록·원효성사 반야심경복원소·판비량론 복원문·〈심문화쟁론〉복원을 위한 수집자료 등 모아져 있다. 2권은 △한자서고(漢子書考)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차생활사 △한국의 차도 등 효당 최범술 스님의 저서가 망라돼 있다. 3권에는 편자인 채 회주가 쓴 ‘현대 한

이 과정에서 효당 최범술 스님이 친필인 사료 분류돼 7년 간 재판까지 치르는 등 적지 않은 고초도 있었다. 그만큼 문집에 대해 연구회가 가지는 애정은 깊다. 그렇다면 문집을 통해 알 수 있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불교는 무엇일까. 채 회주는 “효당 스님은 승과 속을 이원론으로 나누지 않았다”고 말한다. 채 회주는 “효당은 계행을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우려나오는 흐름으로 보았으며 그 흐름은 가름의 결이었을 따름”이라며 “일생 동안 원효학 복원연구에 매진하며 이 땅의 우리 불교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당은 원효를 보편성을 지닌 불교와 특수성을 지닌 우리의 낭가사상이 만 날 접점에 두었다”면서 “보편성의 불교와 특수성의 낭가사상이 만난 접점은 원효이자 국학이었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 “존재인 것은 무엇이나 찰나적이다”

찰나멸논증  
우제선 역자 | 소명출판 펴냄 | 1만5천원



<찰나멸논증>은 유가행파의 중심 논제와 관련된 10권의 논서 가운데 하나로 ‘존재인 것은 무엇이나 찰나적이다’는 명제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며, 불교의 교설 가운데 후기 유가행파의 핵심 이론을 논증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성(sattva)을 논리 근거로 하여 ‘찰나멸’을 논증한다.

다르마카르피 이래로 후기유가행파의 논자들이 시도한 ‘존재성으로부터의 추론’에 입각한 찰나멸론 입증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이 논서는 그의 스승 즈나나

스리미트라(의 찰나멸론)를 불교논리학의 논증방식을 통해 간략하고 명쾌하게 정립한 것인데, 인과론의 입장에서 존재의 본성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담고 있어 불교학 및 인도철학 전반에 기여한 바가 크다.

<찰나멸논증>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논서의 형식은 ‘찰나멸’을 부정하는 브라만 논사들과 이에 맞서는 불교 논사들의 대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프나카르피가 사용한 이지작법(二支作法)의 논증식, 논리근거(hetu)를 통한 논증방법 등은 11세기의 인도 논사들이 어떻게 논쟁했는지를 보여줌과 아울러 당시의 논리학의 체계를 알려준다.

<찰나멸논증>은 논증하는 방식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긍정수반의 형식으로 찰나멸을 논증하는 ‘긍정수반체(肯定隨伴?)’와 부정수반의 형식으로 찰나멸을 논증하는 ‘부정수반체(否定隨伴?)’이다. 전자의 논증방법은 귀류법과 귀류환원법이며, 후

자의 논증방법은 ‘모순인 것에서 논리근거를 부정하는 인식수단’이다. 이 책은 그 범위를 ‘긍정수반체’로 한정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언급한 즈나나스리미트라(의 찰나멸론)와 라프나카르피의 관련 논서인 <지속성비판>, 브라만교의 논사인 바사스파티미트라(의 니야야까니까)와 <따까>, 그리고 다른 브라만교의 논사인 바사르바즈나(의 니야야부사) 등도 함께 비교하고 대조하여 새로운 정판본을 편찬했다.

이는 모든 불교연구자들에게 매우 혁신적이며 유용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역자 우제선 교수의 작업을 단순한 번역을 넘어 정진鼎新의 수준에 다다르게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쉽게 읽히는 책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라프나카르피가 천 년 전에 펼쳤던 논증을 한 땀 한 땀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논리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적 윤희의 극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 아이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닌 ‘답’

백문백답  
천명일 지음 | 지혜의 나무 | 1만5천원



“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요?” / “신은 어디에 있나요? 신이 실제로 있나요?” / “사람은 왜 죽어야 하나요?”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책은 한 학년 단계를 넘어서 초·중·고·대학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상식이나 막연한 종교적 신념의 지식이 아닌, 인간 의식의 절정을 들려준다. 손진무구한 어린이들의 질문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진리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다.

책은 어린이들의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들만을 위한 책은 아

니다. 손진무구한 어린이들의 질문을 통하여 모든 이로 하여금 진리의 내면세계로 이끌어주는 책이다.

사람(那念)으로 만들어진 지식이나 삶의 상식은 어린이들도 너무나 시답잖게 여겨서 듣지도 않는 것이 세태다. 급세기 과학으로 무장된 어린이들에게 지금 여기 산성할 아버지가 천심들의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

책 <백문백답>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일반 세속의 상식에 물들지 않은 동심들이 물었기 때문이다. 곧 책 속의 질문들은 천심에서 우러나온 질문들이고, 그 답 또한 천심을 보는 혜안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 어린이와 주고받은 백문백답은 일반 상식이 나 막연한 종교적 신념의 지식으로 대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묻고 있는 답은 지고한 인간 의식의 절정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의 질문은 천진난만하고 때론 어록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그 어린이들의 질문들은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질문 이었고, 또 내일의 어린이들의 질문들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그런 질문들의 답도 모른 채 어른이 되었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살이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궁금증들을 갖고 있었는지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다. 책은 그 동심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책은 어린이의 질문을 통한 인생의 진리를 꿰뚫는 명쾌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 보고 다양한 견해로 좀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결국 아이들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답’, 즉 질문 자체가 답인 것이다. 마음을 찾는 이에게 마음을, 신을 좇는 이에게 신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에게 이야기를, 천리를 알고자 하는 이에게 천리를, 물리(과학)를 연구하는 이에게 물리를, 윤리 도덕을 익히고자 하는 이에게 윤리 도덕을,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진리를, 그 밖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바를 알려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장 공병수  
명예회장 하도명화, 류진수

## 대한불교 조계종 법계정사

- 주 지 원오스님
- 법 사 보광 이옥태
- 회 장 최문식
- 직전회장 배태순
- 부 회 장 송귀중, 박상덕, 이평자, 김용원
- 인등회장 권선호
- 관음회장 최길문
- 지장회장 김순곤
- 연꽃법회장 이덕자
- 사무총장 최용진

##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부산불교인재원 로터스불교대학

- 운영위원장 지안스님
- 학 장 공병수 원 장 이옥태
- 총무처장 김순곤
- 교무처장 장태석
- 학생처장 최용규
- 대외협력처장 홍성욱
- 총동문회장 김영일
- 1기 회장 이덕자
- 2기 회장 이명숙
- 3기 회장 유학재
- 4기 회장 최문식
- 5기 회장 김용원
- 6기 회장 김위련
- 사무총장 이호열



방장 지유 대종사  
주 지 수 불

- |          |          |          |         |    |
|----------|----------|----------|---------|----|
| 수 좌 인각   | 울해승가대학원장 | 수진 승가대학장 | 용학 박물관장 | 경선 |
| 부 주 지 범산 | 총무국장     | 혜성 기획국장  | 원걸 교무국장 | 승련 |
| 재무국장 무관  | 사회국장     | 보산 문화국장  | 성공 포교국장 | 지장 |
| 호법국장 강하  | 연수국장     | 오산 사서국장  | 법성 원 주  | 석산 |
| 도 감 응진   | 신도회장     | 이윤희      |         |    |

## 총림대중일동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梵魚寺  
金井叢林